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 조속 통과돼야”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 지역 3대 현안 정부·국회 건의 유라시아 대륙철도 호남축 연계·서해안 철도 건설 등도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이 24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서해안(군산~목포)철도 건설, 유라시아 대륙철도 호남축 연계 등 지역 3대 현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광주·전북·전남 광역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회의를 열어 시·도 현안을 논의했다.

의장단은 이 자리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안(광주) ▲서해안(군산~목포)철도 건설 건의안(전북) ▲유라시아 대륙철도 호남축 연계 촉구 건의안(전남) 등 3건의 공동안건을 채택했다.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은 유라시아 대륙철도 호남축 연계 촉구 건의안을 통해 “당초 1999년 DJ 정부 시절 작성된 ‘국가간 교통망 계획’에서 목

포~나진 축과 부산~신의주 축을 기반으로 결정되었던 것이 ‘2013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에서는 누락됐다”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 수립 시 호남축 반영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영표 광주시의회의 의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문화발전소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 있게 정부조직으로 개관해 운영하는 것이 최적이 안”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은 “인건경제자유구역, 황해경제자유구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을 물류벨트로 형성하고 서해안지역을 중국 산업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해안 철도 건설 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협의회는 24일 전남도의회에서 광주·전북·전남 광역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회의를 열고 3건의 공동안건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고 강조했다. 한편 호남권광역의회 의장단협의회는 광주·전남·전북 광역의회 의장단 9명으로 구성돼 지난 2010년 11월 발족한 이후 지금까지 호남권의 공동 현안 22건을 협의,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공영주차장 조성 50% 국비 지원

정부가 주거지와 도심 등의 주차장을 늘리고 기존 주차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차난이 얼마나 해소될지 주목된다.

24일 국토교통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영주차장 공급을 국비로 지원하고 주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드는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 서울 남산 근처를 비롯해 25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221억 원이 투입된다.

주차빌딩(70% 이상이 주차장으로 쓰이는 건물)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차빌딩에 입점할 수 있는 시설을 근린생활·상업·업무시설에서 주거시설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상가 밀집지, 시장 등 불법 주차가 심한 지역의 도로에 제한적 노상주차 허용구역을 지정해 교통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별 무인주차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477억원에서 내년 891억원으로 확대된다. /연합뉴스

“녹색기후기금 지원 1억달러로 확대”

박대통령, 유엔 기후정상회의 연설

유엔 기후정상회의가 23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 사회의 결의를 다지고 해법을 모색했다.

제69차 유엔총회 기간중 하루 일정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세계 120여개국 지도자가 참석했다.

지난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회의 후 첫 정상급 회의다. 이번 회의는 오는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2015년 신(新)기후협정을 타결짓기에 앞서 국제 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시키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최됐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개막 연설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세계가 새로운 길에 들어서도록 해야 한다”며 “여러분이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을 강조하면서, 이번 세기가 끝날 때쯤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탄소제로’(Carbon Neutral)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국 지도자들도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 기조 연설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협약체제의 재원기금인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재원 충원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GCF에 약 5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해 출현하고 있고 이를 포함해 앞으로 최대 1억 달러까지 GCF에 대한 기여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바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20년까지 자국의 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을 기준으로 17% 줄이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40%를 줄이고, EU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27%를 대체에너지로 바꾸겠다는 제안을 했다. /연합뉴스

이낙연 전남지사, 해외 첫 출장서 1억달러 투자협약

24일 일본 정밀화학업체와 체결 日기업, 내년 여수산단에 공장

이낙연 전남지사가 취임 이후 첫 해외 출장지로 일본을 방문, 24일 도쿄 뉴오타니 호텔에서 스미토모세이카(주) 우에다 유스케 사장과의 1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스미토모세이카(주)는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두고 기능성화학품, 정밀화학품 등을 생산하는 일본 내 대표적 정밀화학업체로, 이번 협약으로 여수국가산단에 고흡수성수지 제조공장을 2015년까지 설립할 방침이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스미토모세이카(주)가 일본 자국 내 생산만 고집할 경우 리스크 분산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해외 공장 후보지를 검토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투자유치 타깃 기업으로 설정해 애로사항 청취, 입지 선정 협의,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투자교섭을 벌인 끝에 이번 이 지사 일본 방문을 계기로 투자협약을 이끌어낸 것이다.

스미토모세이카(주)가 여수국가산단에 입주하면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전남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또 이날 미쓰비시상사 등 전남도 내 투자기업 및 새로운 투자 관심 기업 대표 20여 명을 도쿄 뉴오타니 호텔에 초청해 투자유치 여건을 소개하고 전남 투자를 적극 유도했다.

전남도에 진출한 일본 기업은 현재 미쓰비시를 비롯해 미쓰이, 닛폰소다 등 69개 업체이며, 업종별로는 화학 13개(18.8%), 선박부품 12개



취임 후 첫 해외출장에 나선 이낙연 전남지사가 24일 일본 도쿄 뉴오타니 호텔에서 스미토모세이카(주) 우에다 유스케(上田 雄介) 사장과 1억불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 제공>

(17.4%), 기계장비 11개(16%), 식품 7개(10%) 등이다. 한편 이 지사는 도내 중소기업 수출 촉진을 위해 이날 일본 도쿄 게이오 플라자 호텔에서 바이어들과 수출상담회를 갖고 11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추진하기도 했다. 수출상담회에는 전남 수출기업 12개 업체와 일본 바이어 70여 명이 참석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구도심 상권 특화거리로

‘상권 관리제’ 신설키로

중기청, 자영업자 대책 발표

점점 쇠락해가는 구도심 상권을 ‘특화 거리’로 재단장하기 위한 ‘상권 관리제’가 신설된다. 메이크업 종사자가 불필요하게 헤어미용 기술까지 배우지 않아도 되도록 메이크업을 기존 미용업과 분리하는 등 ‘손톱 밑 가시’ 20건도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24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우리 경제의 풀뿌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상권 관리제’ 신설을 추진한다.

중기청은 이를 토대로 ‘상권 관리제’를 도입, 신도심 개발로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드는 지역별 구도심 상권을 ‘특화 거리’로 재단장한다는 구상이다.

구도심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토지 소유주 등이 합의해 ‘상권관리지구’를 구성, 상권 개발 계획을 세우면 지자체는 이를 검토해 ‘상권관리구역’ 지정을 승인한다. 정부는 예산과 세제 지원, 전문 인력 투입 등으로 상권 활성화를 돕는다.

자영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업종별로 20건의 ‘손톱 밑 가시’도 완화한다.

소형 슈퍼마켓에서도 칸막이 설치 없이 다과류를 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휴게음식점을 대학 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허용한다. /연합뉴스

영·호남 문화교류 대축전

▶ 서울시청 앞 광장
▶ 2014년 10월 13일(월) ~ 15일(수) 3일간

서로 다른 둘이 만나 하나로!

영·호남 농·수·특산물 문화를 입다!
영·호남 문화를 소개하고
농·수·특산물을 알리는 교류의 장!

영·호남 농·수·특산물 박람회
홍보부스 참여업체 모집

영·호남 지역자치단체의 행정홍보 및 농·수·특산물 홍보를 위한 홍보 부스 참여업체를 모집합니다.

선착순 모집 배치

문의 (062)220-0555

주최 | (사)아시아문화 · 영·호남 상생포럼
주관 | 광주일보사 · · ·
주관 | 광주광역시 · 전남남도 · NH농림 · 수협